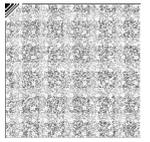


좋아서 한 수집, 메타데이터가 되다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도서관은 장서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존하며, 제공한다.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이 수집하는 장서의 범위 역시 함께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 시대의 수집 방침은 정보 자산의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함께 품고 있어야 하며

이는 곧 도서관 운영에 있어 중심 화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수집에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좋을까.

또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할까. 오래전부터 삶의 편린들을 수집해 온 김달진 관장을 만났다.

껌 종이, 우표 모으던 고등학생

대한민국 근대 미술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다

김달진의 집무실에는 D폴더라 불리는 책장이 있다. 그 책장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것은 하얀 표지의 스크랩북. 그가 평생을 모아온 술한 미술가들의 자료들이다. 스크랩북을 열면 어떤 미술가의 아주 오래된 신문 인터뷰 자료부터 그의 개인전 포스터, 티켓, 팸플릿 등 방대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여있다. 김달진이 수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업데이트되고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카이브^{archive}다.

“수집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모은 것들은 껌 상표, 우표, 담뱃값 같은 것들이었죠. 예쁘고 반짝이는 디자인 요소들이 좋아서 모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미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명화 스크랩을 시작했습니다. 《주부생활》, 《여성동아》, 《선데이서울》 등에 그림이 실리면 그 그림을 보려고 책을 샀어요. 과월 호를 구하러 청계천 헌책방 거리도 엄청 드나들었습니다. 저 녀석 뭐가 되려고 저러나, 어른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웃음}

김달진이 미술 작품을 수집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관람한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이다. 이날 1900년~1960년까지의 한국 근대 미술 작품을 경험한 김달진은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는다. 결국 이 전시는 오늘날의 김달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를 증명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 셈이다.

“그 당시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관람하려면 경복궁 입장권, 미술관 입장권을 각각 구매해야 했는데 학생 입장료가 경복궁이 70원, 미술관은 50원이었어요. 그리고 전시 팸플릿은 200원이었죠. 그때 구매했던 티켓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티켓 하나는 당시의 미술관 운영 구조와 물가, 그리고 이용 방식까지 모조리 담겨있는 정보 그 자체니까요.”

이 전시를 관람한 고등학생 김달진은 서양의 명화가 아닌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자료를 모으기로 마음먹는다. 인사동 전시장을 돌며 전시회 팸플릿을 수집하고, 근현대 미술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방에 넣었다. 그렇게 모은 자료를 정리한 스크랩북을 들고 당시 홍익대학교박물관의 이경성 관장을 찾았다. 이경성 관장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며 그를 칭찬했다. ‘수집’이라 이름 붙은 그의 취미가 개인 차원의 즐거움을 넘어선 순간이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미술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이름난 작가들의 자료에만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밤하늘은 1등성만 빛내는 것이 아니라 2등성, 3등성도 모두 함께 빛을 내는 것인데 그들이 가려지고 잊히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의 기억에는 살아있지만 그를 증명할 기록이

없는 것만큼 서글픈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먹었죠. 내가 그들의 정보를 담은 책을 내고 말겠다. 그것이 《대한민국미술인명록》²⁰¹⁰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집은 그저 수집에만 그치지 않았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끊임 없이 이어갔다. 잡지 속 미술 연재물 기록을 시작으로 미술 단체 카드, 미술 인명 카드, 주제별 미술 기사 색인 카드 등을 정리했다. 전시회일지에는 전시명, 기간, 장소, 주요 출품작가, 해당 전시의 언론 보도 목록 등도 모조리 기록했다.

그의 기록은 요즘 흔히 말하는 메타데이터 속성정보이다. 이미지가 그저 이미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존재하게 된 이유와 부가 정보까지 함께 따라다니며 하나의 덩어리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꼼꼼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문예연감》에 그가 미술계 현황 분석과 전시회 목록을 제공하거나 《한국미술연감》 등에 전시 목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저는 원문 확인 없이 어떤 이야기들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것이 싫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증거를 제시했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라도 저의 데이터는 언제나 확실해야 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했지요.”

미술계의 방대한 자료는 그에게 보존되고, 언론사는 늘 그가 하는 말을 예의 주시했다. 특정 이슈에 사실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면 누구든 그를 찾았다.

어른들의 걱정을 독차지하던 김달진은 2008년,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계 아카이브인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관장이 된다. 한 고등학생의 관심과 취미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술계의 흐름을 판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역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집은 살아있는 기록,
 그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 ‘아키비스트’**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수집을 해 온 것은 아니었어요. 다다익선이었죠. 한데 지금 전시를 꾸리는 입장에서 그게 참 도움이 됩니다. 포스터, 도록, 티켓, 팸플릿 등 각 매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특정 해에 어떤 작품들이 태어났는지, 포스터에 쓰인 글자는 어떤 형태인지, 인쇄 기술은 어떻게 변모해갔는지, 전시 입장료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심지어 포스터에 그려진 약도를 통해 당시 미술관의 위치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의 말처럼 인터뷰 당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던 ‘작가가 걸어온 길 - 화가와 아카이브’ 전시에는 화가들의 전시 초대장, 전시 당시 방명록, 팸플릿은 물론 화가들 간에 주고받은 친필 편지, 수첩에 남겨 둔 지인들의 초상 드로잉 등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었다. 화가들이 전시 전면에 내세운 작품 외에도 그 전시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손길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현재’를 살아가던 그들은 자신이 남긴 방명록의 이름 석 자, 다정한 새해 인사 한 줄이 훗날 이렇게 특정 시대의 상징이 될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을 거다. 그들의 낱장을 묶어 시대로 엮는 사람, 김달진이다.

김달진은 현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관장이자 김달진미술연구소의 소장이며, 《서울아트 가이드》를 제작하는 발행인이다. 미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공유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층에 마련된 한국미술정보센터에서는 누구든 예약만 하면 단행본과 기록물 등의 소장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소장품 DB 서비스도 살펴볼 수 있다. 미술 정보 포털 ‘달진닷컴’에서는 미술계의 동향과 주요 전시 및 도서 소개, 한국 근현대 미술가 및 관계자 인명 검색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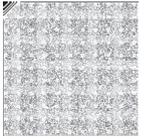
“사실 저는 준사서와 큐레이터 자격을 갖고 있어요. 자료를 관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하던 당시를 떠올려보면,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서는 책 분류하는 것부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서는 전문가입니다. 열람 서비스를 할 때 자료를 잘 분류하고 분류된 자료를 잘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자료를 생산, 가공하여 특화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기록관리학과’가 활성화되면서 사서로 일하는 사람, 관련 없는 분야에 소속되어 있으나 기록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배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기록’을 국가기록원 등에서 다루는 문서 위주로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트아카이브 역시 기록의 한 축이다.

아트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이들을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부른다. 김달진은 우리나라 대표 아키비스트로서 아트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차세대 아키비스트를 양성하기 위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라키비움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다. 2012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키비스트는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 관련 기록들을 관리합니다. 콘텐츠 전문가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내부에서. 그의 오랜 수집이 하나의 박물관을 만들어 냈다.

셈이죠. 아키비스트는 책상에 앉아 들어오는 자료들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찍고, 채록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좀 더 넓은 시야와 넓은 보폭을 지녀야 합니다.”

경계가 흐릿해지는 세상

메타데이터 위에서 자유로워지길

그가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자료들을 토대로 박물관이자 미술관이며 도서관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징하듯,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분야 간의 융·복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솔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사람들 역시 이 흐름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강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세 개의 조언이 있습니다. 하나, 결국 인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일이 단순히 자기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여와 공헌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좋겠지요. 둘, 미친 놈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크랩을 위해 신문을 오릴 적마다 듣던 말이에요. 셋,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박물관을 세울 거라는 큰 꿈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둘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다져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정말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사할 때마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가치를 창출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경매를 통해 작품을 낙찰받고, 작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그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예측대로 물리적인 공간 부족으로 고민이 많다. 아무리

체계적이고 알찬 수장고를 마련해 저장하고 있다고 해도, 개인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수집이 지속되면서 목표를 더 치밀하게 설정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수집 방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방대해지는 규모의 자료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지요. 이 자료들은 제가 모아오긴 했지만 저만의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미술계의 역사를 증명하는 기록물이니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걸으며 통화를 하는 일이 현실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손안에 온갖 세계가 들어차 있다. 몇 자리의 코드로 책을 구입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먼 나라의 미술관도 그 공간에 들어서있는 것처럼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다.

국경은 물론 언어의 장벽을 포함해 모든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 지금,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역시 더욱 입체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이 느껴진다. 자, 우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

글. 최민영 사진. 정민영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소장이자 관장이며 발행인인 아키비스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현대미술관자료실,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을 지냈다. 1999년 한국신지식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령을 받았다. 저서로는 《바로보는 한국의 현대미술》¹⁹⁹⁵, 《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²⁰⁰⁵, 공저가 있다.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늘 고민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